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연내 비대위 출범

오늘 전국위 공고... 26일 의결
윤재옥 "내년 총선 막중한 책임"
한 장관, 윤 대통령에 사의 표명

국민의힘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당의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당 상임고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그동안의 의견을 종합해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민생과 국가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우리가 취약한 청년층이나 중도, 수도권 등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2일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당 전국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전국위를 열어 임명안 의결 절차를 밟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국위 소집을 위

한 공고는 개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어 26일에 임명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직 수락으로 국민

의힘 당대표 공백 사태는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 13일 사퇴한 지 8일 만에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오후 5시께 법

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다.

한 장관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올 계획이었으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연내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최고위는 앞서 22일 임기가 끝나는 이현승 전국위 의장의 임기를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에 필요한 전국위 의장직을 하루라도 비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불가피하게 전국위 의장 임기를 연장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 지도부는 새해부터 새 지도부가 당무와 총선을 이끌 수 있도록 연내에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는 윤 권한대행은 그간 당 중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원로들을 차례대로 만나며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노희용 "광주천 메가타운 조성" 동남을 출마선언

노희용(사진) 전 광주 동구청장이 21일 "서울 청계천 옛 도심 재개발처럼 광주천을 중심으로 동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광주천 동남 메가타운'을 조성해 중장로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내년 총선 광주 동남을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노 전 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0여 년간 중장로 등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입된 재정이 1100억원이 넘는 데도 중장로 상가의 공실률은 여전히 30%를 넘으면서 도심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천 중심 메가타운 조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전 청장은 특히 "서울 청계천은 낙후된 구도심 재개발의 모범사례로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 상가의 재개발로 이어져 이제는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쇼핑하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며 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천을 중심으로 특성 보존, 재개발, 자율 갱신, 종합 정비로 나눠 3개 권역 7개 특화지구로 개발하겠다"며 "이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광주는 온전한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동·남구의 상권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소상공인·청년부채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황제세,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출연 요율 현실화로 '빛 사회'가 아닌 '빛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노 전 청장은 광주 서산초, 전남중, 인성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지방고시(1회, 1996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공보관, 문화관광정책실장, 민선 5기와 6기 동구청장을 지냈다. 김은지 기자

김세미가 "국민과 소통" 복구를 출마선언

김세미가(사진) 새디지털시대공감 이사장이 21일 "국민과 소통, 공감, 동행, 행동하며 시민의 삶을 함께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 광주 복구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지감세와 고물가, 고금리로 시민은 고통스럽고, 이를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제1당인 민주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4가지 바람직한 정치인상(像)을 제시했다. 우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정치인을 지향하겠다"며 "광주의 민주당이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완도 깊은 바닷속 물질을 해운해녀였던 어머니의 습관으로 책을 사고 옷과 구두를 신으며 성장했고 '노사모'를 통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한 시민정치에 참여했고, 국회, 기업, 비영리법인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도 갖췄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완도 신지동중, 광주대성여고, 전남대를 나온 기계공학 석사로, 국회 정책비서관과 삼양식품 문화홍보실 이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위원회 등을 지낸 뒤 현재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새희망더하기 공간나눔 이사, 국제교류연맹 감사로 활동 중이다. 김은지 기자

이낙연 "사퇴 요구"에 이재명, 사실상 거부

이 전 대표, "연말까지 시간 주겠다" 이 "의견이야 얼마든 말할 수 있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며,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연말까지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을 결단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의견이야 얼마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킥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통합 비상대책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라며 "지도부를 바꾸면 (민주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하는 제 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를 이달 말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통합형 비대위에 대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한 것 같다"면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해결책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도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회동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절박한 생각을 내가 다 아는데 결과로 나온 것은 없었다"며 "그것을 지켜보려고 예정된 방송 인터뷰까지 취소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창당을 목표로 신당을 만드는 실무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한 경로당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이라며 "의견이야 얼마

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에 공감한다며 이 대표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이낙연 대표께서 무조건 이재명이 싫어서 신당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다"라며 "결국에는 통합 비대위를 만들고 당이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간다고 하면 당을 위해서 최대한 헌신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모습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재명의 사당화로 완성되다시피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진짜 민주당을 내가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도 '공익직불 협의체' 올해 최우수 시책 선정

전남도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올해 최우수 시책으로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각 실과와 사업소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시책 30건을 대상으로 도청 직원 내부 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를 거쳐 '2023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 결과 최우수 시책은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가 영예를 안았다.

우수시책은 '전남 해상풍력 규제 전복

대세 개나 싹싹',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1000만 숙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행 신기록' 등 4건이 선정됐다.

또 장려 시책은 '전남 국립호국원 유치' 등 5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시책에 선정된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약체제를 구성해 소통과 협업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한 협업사례다.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적

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영농일지 작성, 필수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해 전남 471억원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2300억원 감액 예방 성과를 거뒀다.

최병남 전남도 균형성과 담당관은 "전남형 공익직불 협의체 전국 확대와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등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도민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크고 도민 수혜도가 높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